

보도자료

2011년 12월 7일(수) 17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대변인실 공보팀장 정성환(☎02-750-1520)
대변인실 임기수 사무관(☎02-750-15134)**“스마트시대 열정과 상상력, 윤리의식을 갖춘
동락(同樂)의 리더십 필요!”****- 최시중 위원장, 12월 7일 연세대 강연 -**

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격변하는 IT환경과 그 대응에 관하여 12월 7일 수요일 연세대학교에서 '변화와 미래, 그리고 동락(同樂)의 길'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.

이날 강연에서 최 위원장은 'IT 춘추전국시대에 구글·애플은 공정한 배분과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로 동락의 길을 선택했으며, 스웨덴은 성장을 통한 분배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통해 동락의 복지국가가 되었다'고 말했다.

특히, 최 위원장은 동락시대의 리더십으로 건전한 열정, 상상력, 도전정신 그리고 사회적 윤리의식을 강조했다.

그는 상상력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스티브잡스와 김종훈 벨 연구소장을 도전정신에는 아바타의 카메론 감독과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을 소개했다.

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서 “자신에게는 엄격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,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.”고 당부했다. 끝.